



김행중 조합장

# 국산 한약재 유통단지 신설! 국산 한약재법 개정! 한약재 메카로 자리 잡겠다

*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바랍니다.*

“1967년에 발족된 본 조합은 930여명의 조합원들과 전남 도내 약재를 재배하는 농가들과 함께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. 본인은 86년도에 조합장이 되어 현재까지 조합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, 현 조합에서 11명의 직원과 함께 매장관리 및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. 이곳에서는 투명한 유통으로 전남 도내 약재 재배 농가로부터 가져와 저렴하고 품격 높은 약재를 정확한 원산지 표기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.”

*조합 매장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, 구성한 의도는 무엇인지요.*

“우리 조합으로 들어서면 국산한약재와 수입한약재로 구분을 지어냈다. 이는 소비자들이 몰라서 속고, 알고도 속아야 되는 유통의 불신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 해 주기 위함이다. 이를 중심으로 한의원, 건강원, 제분·제환소를 곁에 두어 원하는 약재가 있을 경우 직접 약재를 보며 상담을 해도 되

지만, 자신에게 맞는 약재를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 즉석에서 전문한의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약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배려했다. 또한 별도의 가공공장을 두어 녹용 및 중탕 등의 건강식품의 가공을 원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합 1층과 2층에 마련해 모든 원하는 것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.”

*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에서 판매되는 약재, 경영에 있어서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.*

“뭘니 뭘니 해도 유통단계의 투명화를 위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, 생산농가와 직판 형태를 취해 신선도와 저렴한 가격이 약재 및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한다. 또한 각 코너별로는 전문 직원들이 상세한 정보와 효능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기존의 도매 형태의 판매방식에서 탈피해 한약재들을 소량 단위로 포장, 판매 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. 건강원과 제환소도 함께 운영해 현장에서 순수 국산한약재로 약을 지을 수도 있다.”

현 50%이상이 원산지 구분이 돼 있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버젓이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는 실정,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예 국산을 바란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구입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속내이다. 그러나 전남생약은 국내 최초로 원-스톱 약재 쇼핑세터를 구축, 여기에 철저한 원산지 구분으로 유통의 투명성을 더 했다. 소비자들의 반응은? 두말 할 것 없이 대 만족!

99년도 12월부터 시작한 한약 약초 판매, 가공으로 맥을 이어오다, 약초는 도매로 판매했다. 지금은 가공, 한약재, 도·소매를 잇는 one-stop 매장을 구축하게 됐다. 이렇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. 그만큼 소비자들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유통을 바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.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김행중 조합장으로부터 국내 한약재의 자존심을 엿본다.

### 판매되는 약재의 몇 종입니까.

“총 520종의 한약재중 480종이 국내산 한약재이며, 나머지 150여종이 수입산 한약재이다. 한약재 주 생산지인 구례·광양 등지의 1천여 농가에서 재배한 작약, 황기, 구기자, 오미자 등과 건강식품 등이 시중가보다 무려 20~30%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. 또한 이곳은 무분별한 약재 수입으로부터 국산 한약재를 보호하는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.”

###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.

“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유통단지를 세우게 된다. 정부에서 100억원의 지원을 통해 제조시설(세척, 건조, 포장), 건조시설 등 기존의 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이며, 이로써 전남 화순은 국내 한약재로서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. 또한 올 가을부터는 520종에 대한 표준가공법을 신설해 약재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.”



전남생약 농업협동조합 전경



수입·국산 한약재 비교 전시대